

6·25전쟁 67주년 맞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부산지부, 유엔기념공원서 16개국 참전전몰용사 기려



◇부산시지부가 6월 25일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원 안은 김경재 총재)

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25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전몰용사 추모제를 열었다. 유엔기념공원은 67년 전, 신생독립국 대

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산화한 16개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총재와

양재생 부산시지부 회장 등 연맹 임직원과 회원,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현 부산시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 군 및 보훈관계자, 학생, 일반시민 등 3000여 명

이 참석해 유엔군 전몰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도 추도사를 보내 이날 행사를 기념했다.

김경재 총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6·25참전 용사 앞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우리 모두 더 간절하고 엄숙한 추모를 바쳐 혼백을 위로하는 것이 현충일을 맞는 후손들의 당연한 자세”라며 새 정부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은 추도사를 통해 “유엔군은 한국인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함께 협력하고 연대했다. 정전협정 이후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남아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군의 헌신과 지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추도사와 헌시 낭송, 헌화, 묵념, 진혼곡(비목), 6·25노래 합창 등의 순서에 이어 참석자들의 유엔전몰용사 묘비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알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회원 소식지(KFF뉴스)를 7월 15일자(172호)부터 12면으로 증면, 월간으로 인쇄 발간합니다. 증면에 따라 안보-통일 칼럼, 회원 참여코너가 확대되오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육군 제25사단 위문 ‘호국보훈의 뜻’ 되새겨

최전방 자매결연 부대 장병 노고 치하, 위문금 전달

연맹 김경재 총재와 임직원 60여 명은 6월 21일 중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제25사단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김경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1953년 4월, 창설된 이래 중부전선의 최전선을 물샷틈없이 지켜오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맹이 장병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과 산하 시·도지부(회)는 6·25전쟁 67주년 호국보



◇25사단 장병들과 함께 한 김경재 총재와 임직원들.

훈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선열의 숭고한 호국보훈의 뜻을 되새기는 행사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사업 ▶평화 통일 선도 행사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활동을 펼쳤다.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

학, 추모제 진행, 안보사진전시회, 6·25 전쟁 음식 체험, 통일 릴레이 체험 교육 등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지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 앞장섰다.

자유로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 한국자유총연맹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출동! 자유통일선봉대 휴전선 155마일 답사"

DMZ 국토대장정

대장정 개요

행사명 제8회 전국지역별(부산) DMZ 국토대장정
일 시 2017년 9월 9일(수) ~ 9월 15일(화)
대상/인원 대학원(생) 100명
코스 강원 고성 - 안방 - 영구 - 화진 - 철원 - 연천 - 파주 임진각(54부대 및 평화의 종리) (총 300km 구간)
주요내용 출정식 8.9 / 자유센터, 오리엔티어링 8.9 / 고성 진부리유원지, 원주식 8.15 / 파주 ISAC(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KFF 한국자유총연맹